

## 이인영 “DMZ에 남북 공동 재난관리시스템 갖 추면 주민안전 지킬 수 있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 남북 공동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2020 DMZ 포럼' 축사에서 “DMZ에 남북이 공동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춘다면 수해·병해충·산불 등이 경계를 넘나들 때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전이 더디던 접경지역에도 사람이 오가고,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평화경제의 엔진이 힘차게 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DMZ를 ‘국제평화지대’(IPZ: International Peace Zone)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무장지대라는 역설적인 명칭을 평화·생태·역사적 가치를 세계 속에 발신하는 국제평화지대로 변모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협력과 교류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여러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많은 분이 DMZ 평화의 길을 직접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총선캠페인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에 맞춰 열렸습니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 평화 NGO 관계자 등 패널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선민 (freshmin@kbs.co.kr)

## 이재명, 북에 공동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5개 사업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 공동방역과 수해복구 지원 등 5개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하며 경색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9/17) 열린 '2020 DMZ 포럼' 기초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절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총회개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 5개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소극적이고 불인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합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열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해 변명의 실로 고지 하라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 등 항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며 "올은 길이라던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며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으며, 괴력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통·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 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임진강 수계관리와 관련해서는 수해 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한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체계와 서해 경제 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협력의 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름다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사의 연구를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방묘장 조성 물동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연 대책제 제 번째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개종양요청과 농촌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북측이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임해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DMZ는 평화를 위한다'라는 주제로 이날 개막한 DMZ 포럼은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모보위, 미국 하버드대 조셉니이 교수 등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 NGO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초청세션 등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늘(17일)에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DMZ의 보전과 개발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세션, 보훈교육연구원과 북한 과학기술연구원 등이 남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과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초청세션,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논의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됩니다.

내일(18일)에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한반도중전영화평화연어 공동주관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이배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성 특별강연, 문성민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와 특별세션, 포럼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합니다.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www.dmtforum.or.kr](http://www.dmtforum.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개최식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혜분 (thankyou@kbs.co.kr)

## '렛츠 DMZ' 축제 오늘 개막..."공존 의미 알린다"



### ◀ 앵커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비무장지대, DMZ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축제인 '렛츠 DMZ' 행사가 오늘 막을 물립니다.

한반도 번영을 주제로 한 DMZ 포럼과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음악 공연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홍의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 리포트 ▶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하고 비무장지대, DMZ가 지닌 '공존'의 의미를 알리는 종합 축제가 시작됩니다.

'렛츠 DMZ'로 이름 붙여진 이번 축제에는 4개의 세부행사가 펼쳐집니다.

우선 'DMZ는 평화를 원한다'는 주제로 열릴 DMZ 포럼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기초 연설을 하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캐슬런 스티븐스 전 미국대사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화상 토론을 열릴 예정입니다.

또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평화와 소통,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국내외 33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122편을 상영하는데, 이 가운데 15편은 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는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 판문점을 모델로 한 체험관 'DMZ 빌리지'가 조성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독대한 판문점 '도보다리'를 모형으로 제작해 전시하고, 남북 철도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예술작품도 설치됩니다.

국내 주요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DMZ 콘서트'는 DMZ 헌정곡 발표와 평화를 염원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경우, 전시와 공연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 [강현/렛츠 DMZ 집행위원장]

"온라인 연선 공연과 3D 가상 전시 체험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언택드로(접촉없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DMZ가 지닌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84-4000
- ▷ 이메일 mbcjebo@mbc.co.kr
- ▷ 카카오톡 @mbc제보(홍의표)

## 이재명, 공동방역·수해 지원 등 5가지 남북 협력사업 공개 제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오늘 열린 DMZ 포럼 기조연설에서 5가지 남북 협력사업을 북측에 공개 제안했습니다.

제안 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융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입니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 여름 폭우로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방류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고려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북측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안다" 경기도가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DMZ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해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며 자신의 대북정책관을 밝혔습니다.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한 DMZ 포럼은 미국 하버드대 조셀나이 교수 등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진행됩니다.

나세움 기자(salto@mbc.co.kr)

## 이인영 "DMZ 남북 공동 재난관리로 수해 대응"

김아영 기자 Seoul nina@sbs.co.kr

이인영 "DMZ 남북 공동 재난관리로 수해 대응"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에 남북 공동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온라인으로 열린 2020 DMZ포럼 축사를 통해 "DMZ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춘다면 수해, 병해충, 산불 등이 경계를 넘나들 때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대응하고 주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의 복원이 DMZ의 새로운 미래"라면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에도 도로와 철도가 연결돼 평화 경제의 엔진이 힘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명칭은 "평화, 생태, 역사적 가치를 세계 속에 발신하는 국제평화지대(IPZ, International Peace Zone)으로 변모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총선캠페인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DMZ는 평화를 원한다'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北에 공동방역 등 5개 협력사업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 공동방역과 수해복구 지원 등 5개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오늘 열린 '2020 DMZ 포럼' 기초연설에서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점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등 5개 사업에 협력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2020 DMZ포럼은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평화NGO 관계자 등이 참석해 'DMZ 평화를 원한다'를 주제로 이틀간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경기] 이재명, 北에 공동방역과 의료협력 등 5가지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남북 공동방역과 수해복구 지원 등 5개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2020 DMZ 포럼' 기초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점경지 사업 조사·연구, 삼림복원과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 5개 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해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이재명, 북측에 공동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협력사업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 공동방역과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7일) 열린 '2020 DMZ 포럼' 기초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제안한 5가지 협력사업은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심림복원과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입니다.

우선,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사업은 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을,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재개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은, 남북 공동 심림복원과 농촌종합개발은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염두에 둔 제안입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큰 결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www.dmzforum.or.kr](http://www.dmzforum.or.kr))에 접속하면 세션 시청 등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북측에 공동방역 등 5가지 협력사업 제안... "통큰 결심 기대"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 공동방역과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협력 사업을 북측에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열린 '2020 DMZ 포럼' 기초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이 지사가 제안한 협력사업은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산림복원과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 총 5가지입니다.

우선,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사업을 위해 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으며,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방류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고려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북측을 위해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 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개풍양묘장과 농촌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19 평양공동선언 따른 한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와 서해 경제 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로'라며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큰 결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 임동원 Let's DMZ 조직위원장, 강현 집행위원장 등이 Let's DMZ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 남북공동선언 기념 종합행사 Let's DMZ 오늘 개막

포럼·다큐영화제 비대면으로 진행  
23-25일 라이브 콘서트 '사전에약'

'DMZ포럼'과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필두로(9월15일자 2면 보도) 경기도의 Let's DMZ가 17일 막을 연다.

16일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와 임동원 Let's DMZ 조직위원장, 강현 집행위원장은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Let's DMZ는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도가 지난해 시작한 DMZ 종합 행사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

17일 시작되는 DMZ포럼과 DMZ 국제다큐영화제에 더해 Live in DMZ가 다음 달 23-25일 열린다. 라이브 DMZ의 주축인 DMZ콘서트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인원을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무관중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기에 DMZ 일원을 직접 뛰거나 걸으며 DMZ의 평화통일 메시지를 알리는 'DMZ 런'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DMZ 평화통일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됐다. 대신 DMZ 도보 길의 가치와 매력을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DMZ 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올해 중 방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2년 전 남과 북 두 정상은 평양에서 만나 비무장지대 DMZ를 대치가 아닌 평화의 공간으로 바꿔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이다. 9·19 선언 이행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평화와 생태의 땅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절실한 과제이자 경기도의 숙원"이라며 "지난해 Let's DMZ를 처음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사는 이어 "DMZ의 가치를 제대로 공유하고 평화·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 축제를 기획했다"며 "DMZ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와 평화의 상징이다. 함께 하면 반드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남극성기자 nam@kyeongin.com

# ‘렛츠 디엠지’ 오늘 개막

25일까지 포럼·콘서트·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열려

‘9·19선언 2주년’의 의미와 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경기도 종합 축제 ‘렛츠 디엠지(Let's DMZ)'가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고양·파주 일대에서 열린다.

‘렛츠 디엠지’는 ▲디엠지 포럼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 ▲디엠지 런(DMZ RUN) ▲디엠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4개 행사를 통칭하는 공동 브랜드이다.

임동원 ‘렛츠 디엠지’ 조직위원장(전 통일부장관)과 이재강 평화부지사, 강현 집행위원장(경기문화재단 대표)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렛츠 디엠지’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디엠지 포럼’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국제시민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 행사로 17·18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클린턴 정부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셉나이가 기조연설에 나선 예정이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세션(기획, 초청, 특별, 평화운동협력)도 진행한다.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라이브 인 디엠지’는 콘서트와 전시·체험행사인 디엠지 발리지로 구성된다.

‘디엠지 런’은 155마일 디엠지 도보 길의 가치와 매력을 국민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능과 교양이 어우러진 ‘디엠지 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내 방영할 계획이다.

‘디엠지 국제다큐영화제’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 고양시·파주시에서 개최한다. 33개국 122편의 국내외 우수다큐멘터리들 심사위원, 작품관계자에게 상영하고 7개 부문 16개 상을 시상한다.

개막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파주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가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디엠지(DMZ)의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 학술부터 공연까지... 축제로 승화한 남북평화

## 경기 Let's DMZ 오늘 개막

DMZ의 평화·협력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경기도 '2020 Let's DMZ(렛츠 디엠지)' 행사가 오는 17일 막을 올린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시스템을 함께 진행한다. 행사는 랫츠 디엠지 홈페이지(www.dmzforum.or.kr)에서 실시간 송계된다.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영동원 랫츠 디엠지 조직위원장, 강현 집행위원장과 16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랫츠 디엠지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장르 부문 '종합예술제' - 불거리 풍성 - 올해 랫츠 디엠지 행사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18일에는 'DMZ 포럼'이 포문을 연다. 포럼은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 행사다. DMZ는 평화로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이재명 지사와 라이베라야 평화운동가 라마보유,

한민련 정부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승나이가 기조연설에 나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장인 외교안보특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세션을 진행,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오는 23일부터 25일에는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 행사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음악 공연행사인 DMZ 콘서트와 전시·체험행사인 DMZ 빌리지로 구성된다. 다들난인 24일 열리는 디엠지 콘서트에는 오상진 전 아나운서와 배우 유이의 사회로 마마무, 잇지, 아이즈원 등 아이돌 그룹과 손준호, 김소현, 함춘호 등 유명 뮤지션들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디엠지 현장곡이 첫선을 보이는 자라인 만큼 더욱 관심을 끈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판문점을 모델로 디엠지 '빌리지'를 조성하고 아트존, 공동평화구역존, 평화메시지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로 디엠지 런(DMZRUN)은 디엠지 일원을 직접 뛰거나 걷으며, 디엠지의 평화적 활용과 평화통일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스포츠 행사'다. 당초

'평화통일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155마일 DMZ 도보길의 매력 을 알리는 'DMZ 로드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대신하게 됐다.

# DMZ 종합예술제 9월 달군다



16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 임동원 Lets DMZ 조직위원장, 강현 집행위원장이 Lets DMZ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세계 석학들 학술포럼으로 포문을 임진각 평화누리 23-24일 콘서트 국제다큐영화제 33개국 122편 상영 코로나로 평화통일마라톤은 취소

넷째로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 고양시 파주사에서 소규모로 축소해 개최된다. 행사 기간 33개국 122편의 국내외 우수다큐를 심사위원, 작품관계자만 대상으로 상영하고 7개 부문 16개상을 시상한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나요"-코로나19 확산에 방역 최우선-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통해 랫츠 디엠지(Let's DMZ)' 행사들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우선 개막식은 오는 17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파주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행사 첫날 열리는 랫츠 디엠지 포럼에 참가하는 해외 인사들도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학술행사에 함께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오는 24일 개최하는 디엠지 콘서트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디엠지 런(DMZRUN)' 행사는 당초 마라톤 형식의 스포츠 행사에서 DMZ 로드 다큐멘터리로 대신하게 됐다. 도는 오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에 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디엠지 평화통일 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과감히 취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다 스포츠 행사 특성상 비대면 추진이 불가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재강 부지사는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가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DMZ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평화의 길로 가는 경기도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 무궁무진한 'DMZ 특별한 가치, '렛츠 디엠지'서 전파된다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행사

모든 평양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의미를 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렛츠 디엠지'와 'DMZ 특별가치'를 주제로 다룬다.

DMZ의 특별한 가치, 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렛츠 디엠지'와 'DMZ 특별가치'를 주제로 다룬다.

경기도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DMZ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렛츠 디엠지'와 'DMZ 특별가치'를 주제로 다룬다.

## 경기도 내남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오늘 아재팜 지사 협력 '포럼' 시작

## 내남 23일 '라이브 인 디엠지' 송

절제한 방역 관리 속 전 세계에 홍보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DMZ 특별가치 전시회를 개최한다.

# 인천일보

# 도, 평화 염원... 남북 교류 재개 기대감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눈앞 통일부, 북 협의 채널 복구 촉구  
도, 렛츠 디엠지 사업 계획 발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16일 북한에 협의 채널 복구를 촉구했다.

경기도 역시 평양공동선언문의 의미와 비무장지대(DMZ)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렛츠 디엠지'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16일 과주 관문점을 찾아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협약의 의미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한반도는 전쟁을 야기시키는 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이 평화를 재감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게 평가해야 옳다"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협약의 군사 감동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구를 두고서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후 대남 군사행동 보류와 대북전단 준비 중단 등 지시하는 등 남북 협력을 지키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나이지면 다음 달부터라도 관문점 전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며 "관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재의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최근 비 피해를 봤다. 안타깝다"며 "적절한 시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재개가 북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 날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평화를 염원하는 렛츠 디엠지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렛츠 디엠지는 디엠지 포럼, 라이브 인 디엠지, 디엠지 런, 디엠지 디큐 맨터리영화제 등 4개 행사를 중심으로 평화협력 브랜드다.

이에 따라 도는 17~18일 이재팜 지사와 리아보워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캐슬린 린 스티븐슨 전 쿠반미국대사 등과 평화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또 고양·과주시에선 24일까지 디엠지 국제다큐 맨터리영화제도 연다. 이어 다음 달 23~25일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남북 협력을 기념하는 대규모 콘서트(라이브 인 디엠지)도 개최된다.

이재팜 평화부지사는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평화를 향한 염원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경기도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계산실 기자 mail@incheonilbo.com